

Sodium Silicate 시장 악전고투

북미, 9.11테러 영향으로 수요감소 ... 수익성 회복 힘든 상태

북미의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 시장이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한 반면 중서부 및 남서부 지역의 생산 확대로 고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가을 가격인상 이후 당분간은 추가인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PQ는 2001년 11월 액체 규산나트륨 가격을 cwt당 35센트(톤당 7달러), Lump Glass 및 Anhydrous Glass Powder 가격은 cwt당 90센트 인상했다. Occidental Chemical과 다른 경쟁기업들 역시 가을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PQ는 규산나트륨 생산능력이 50만톤에 달하고 있는 리더기업으로 2001년 11월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과 2001년 초 가격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수익성 하락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01년 2년간 가격인상은 1990년대 이후 급작스런 코스트 상승으로 야기된 수익손실을 만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1990년대 초기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공격적으로 코스트를 줄이려는 노력이 기업 희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OxyChem 역시 2001년 말 가격인상 전략이 성공적이었으나 1990년에서 1995년의 가격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천연가스 및 원료 및 생산제품의 수송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규산나트륨 시장은 2001년 초 기록적으로 상승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2001년 9개월간 원상 회복시켰지만, 원료가격이 10년 평균치보다도 50%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장기계약 수요처들에게는 가격을 할인해줌으로써 Solid 및 Glass 그레이트 List 가격이 100cwt당 약 30.60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에는 26.75-27.50달러 사이에서 변동했다.

북미의 규산나트륨 공장가동률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몇몇 공장은 가동률이 90-100%를 보이는 반면, 몇몇은 75%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평균 가동률은 87%로 나타나고 있다.

OxyChem은 미국의 규산나트륨 생산능력이 약 350만톤에 달하는 반면, 수요는 300만-310만톤에 불과해 가동률이 87%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PQ는 지난 10년간 다른 지역의 생산제품을 공급하는 한편 디보틀넥킹을 통해 공급을 확대했다. PQ는 몇몇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과잉생산물량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PQ 및 경쟁기업들은 지난 몇년간 수요변동에 따라 플랜트를 폐쇄했는데, 최근에는 2개 플랜트를 폐쇄하고 일리노이주 Gurnee 플랜트를 가동했을 정도이다.

미국의 규산나트륨 시장은 경기악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9.11테러의 영향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5/28>